



‘군상’

‘추상미술의 대가’ 이응노 대표작 만난다

광주신세계갤러리 3월1일~27일 ‘고암 이응노전’

‘군상’ 등 회화·조각에 첫 공개 작품도 다수 선보여

2m 규모의 한지 위에 수천명의 인물이 꿈틀거린다. 먹으로만 표현해낸 숲한 사람들은 춤을 추듯, 시위 하듯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인간들은 국적도, 성별도 구분할 수 없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인 ‘군상’ 시리즈는 그가 80이 넘은 후 몰두한 작품이다. 늘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예술가적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응노 화백은 불행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파리 체류 중이던 그는 1967년 작곡가 윤이상 등과 함께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6·25 전쟁 당시 월북한 아들 문제로 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게 화근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옥중에서 300여점을 그렸다.



‘군상’



‘Untitled’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파리로 돌아간 그는 이후 1977년 파리에서 피아니스트 백건우 영화배우 윤정희 부부의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의 배후로 몰려 곤욕을 치렀고, 이후 1983년 프랑스에 귀화했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고암 이응노 화백(1904~1989)은 한국미술 1세대로 한국적 추상미술의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다. 그는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예술적 열정과 실천 속에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회귀를 멈추지 않았다.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3월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으로 꼽히는 60~70년대 서예적 추상, 80년대 인간군상 등 회화를 비롯해 조각 등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중 다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전통 수묵채색 서화를 담구며 일가를 이룬 고암은 답습의 고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1958년 중년의

나이에 프랑스로 건너갔다. 현지에서 추상표현주의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조를 보며 자유로운 조형정신에 자극을 받은 고암은 동서양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자추상’, ‘군상’ 등 독자적인 화풍을 선보였다.

유럽 미술계는 동양적 주제성이 뚜렷하면서도 동시에 전후의 현대미술이 담보해야 할 맥락을 유연하게 담아낸 고암에 주목했다. 고암은 한국인 작가로는 드물게 세계 각지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어 활동할 수 있었고 지난 2017년에는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그는 또 1964년 파리 세르누시미술관에 파리동양미술학교를 설립, 유럽 3000여 후학에게 서예와 한국화의 기본과 정신을 가르치며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유럽미술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매일 도슨트 전시 설명. 문의 062-360-16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곡으로 재탄생

대중화·세계화 1차년도 사업

작품공모·작가지정 통해 제작

올 5·18 38주년 특별음악회 연주

오일 추모곡이자 민주화운동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사진)이 다양한 형태의 관현악곡으로 제작돼 5·18 38주기 특별음악회에서 연주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사업 1차년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문화콘텐츠로 제작해 송고한 가치가 문화로 승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시비 5억을 확보해 관현악곡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단은 관현악곡 제작 추진을 위해 최근 7명으로 구성된 국내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논의를 했다. 당초 계획은 교향곡 제작이었으나 세계화, 보편성 취지 그리고 향후 활용 등을 고려해 다양한 관현악곡으로 제작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현악곡 제작방식은 크게 작품공모와 위촉(지정)으로 나뉘며, 작품공모는 3월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한 관현악곡 작품 공모를 통해 오는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관현악곡 위촉은 총 5가지 유형(제성)으로 나뉘어 5·18 특별 기념음악회 때 ‘서곡’과 ‘교성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은 8월까지 완성해 9월~10월경 국내외 주요도시 순회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5·18 특별기념음악회에 초연될 관현악곡 ‘임을 위한 서곡’은 황호준 작곡가, ‘교성곡’은 김대성 작곡가가 위촉 작곡가로 결정됐다. 황호준 작곡가는 중앙대 한국음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편성의 곡들을 다수 작·편곡했다. 2013년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김대성 작곡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했으며 민족음악론을 주창한 이근용 작



곡가에게 사사했다. 2000년 KBS 국악작곡대상, 2007년 교성곡 ‘홀’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다.

향후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국비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2022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제작할 방침이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부터 5·18 기념식에서 제창 방식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대 ‘국론 분열 우려 방침’에 따라 2009년 기념식부터 원하는 사람만 부르는 합창형식으로 변경됐다. 5월단체 등 시민사회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했으며 이후 노래는 촛불집회 때 전국 각지에서 불렀고, 지난해 열린 37주기 기념식에서 다시 제창돼 민주주의의 상징곡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은 광주가 민주 인권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콘텐츠 제작·보급·활용을 통해 예술과 산업이 연계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670-746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만화가협회 “성추행 논란 박재동 화백 징계 논의”

한국만화가협회는 최근 제기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27일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법률 지원 등을 통해 도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박 화백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러나 박 화백은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건 기억이 없는데...”라며 “우리가 그때 다 친하게 이렇게 막 지내고 격의 없이 막 이야기

했기 때문에 뭐지 모르겠어요”라며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화가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협회ಗೆ 제보를 받아 2016년 11월 발간한 만화계 성폭력 사례집에도 수록됐던 내용이다.

제보자는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만화계 행사에서 어쩌다 (그 원로작가와) 마주치면 아직도 혐오감에 구토가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종합예술학교는 “박재동 교수는 이번 학기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며 “조사 결과 가나오면 징계나 처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